

김태군이 쏘아올린 한 여름밤 축포...‘별들의 무대’ 수놓다

2025 프로야구 올스타전, 8회말 나눔팀 4연승 완성한 ‘쌔기포’

박찬호·최지민·김호령도 준재감 발휘...이범호 감독 ‘승리 감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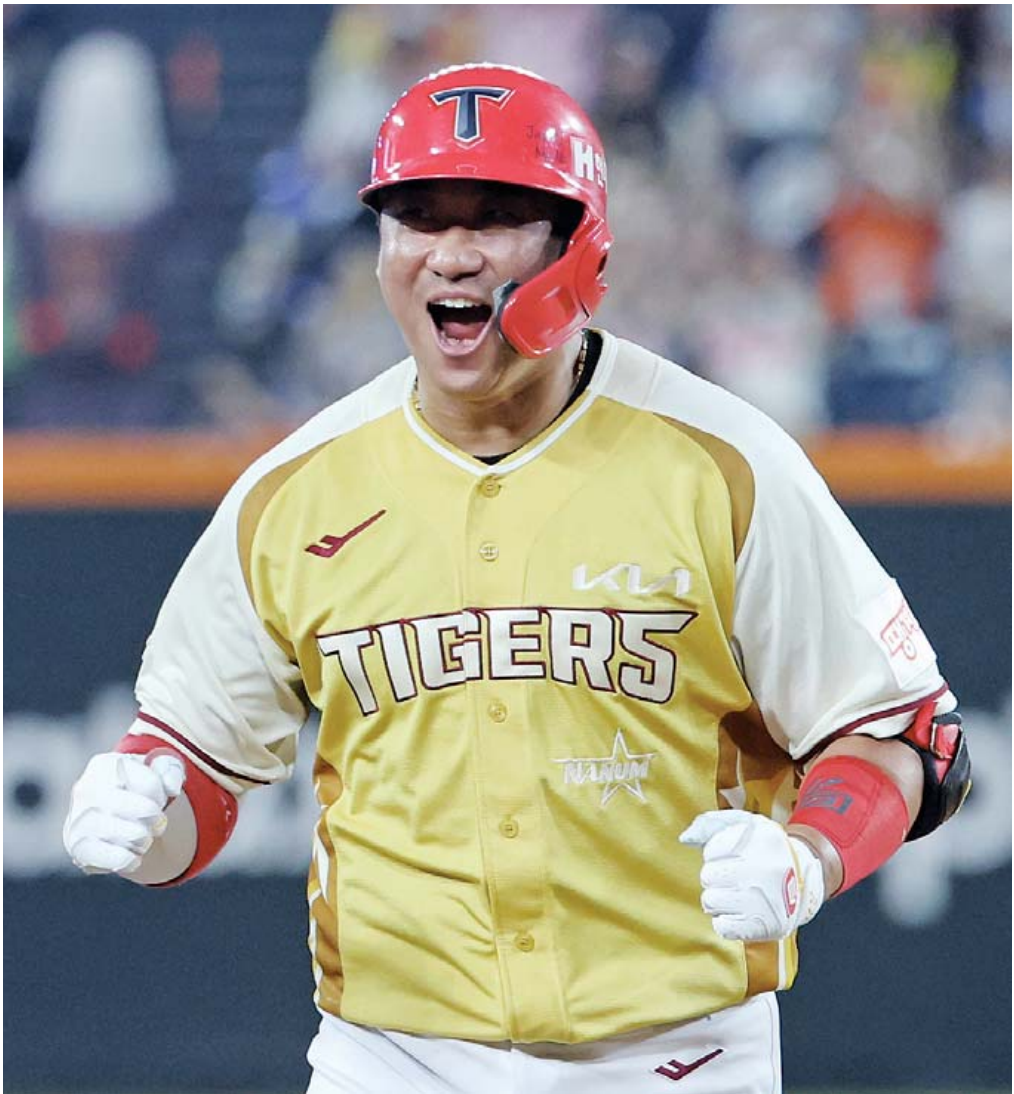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별들의 잔치’에서 화려한 수를 놓았다.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이 지난 12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렸다. 야구인과 팬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답게, 올스타전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팬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이날 경기에서 이범호 KIA 감독이 지휘한 나눔 올스타(KIA·LG·한화·NC·키움)가 드림 올스타(삼성·두산·KT·SSG·롯데)를 8-6으로 꺾었다. KIA에서는 김태군(포수), 박찬호(유격수), 김호령(중견수), 최지민·성영탁(이상 투수) 등 총 5명이 나눔팀 소속으로 출전했다. 이 가운데 김태군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 7-6으로 앞선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그는 드림팀 투수 박영현(ki)의 직구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나눔과 드림의 양대 구도 체제로 바뀐 2015년 이후 나눔팀의 4연승을 결정짓는 썰기포였다. 통산 6번째 올스타전 출전에서 기록한 첫 홈런이기도 하다.

유격수 겸 9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박찬호는 2회 좌중간 2루타를 기록했고,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더하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불펜 최지민은 8회초 마운드에 올라 드림팀 중심 타선과 맞섰고, 4번 타자 디아즈(삼성)를 1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이 밖에, 올스타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선수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김호령과 성영탁은 나란히 생애 첫 올스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밟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성영탁은 3회에 등판해 짧지만 뜻깊은 투구를 펼쳤고, 김호령은 7회 교체로 중견수 수비에 나선 뒤 8회말 첫 타석에도 들어서며 올스타 무대의 설렘을 만끽했다. 경기 외적인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찬호는 ‘하츠피’로 변신한 딸 세안양과 함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미 공주’로 분장해 등장했다. 유쾌한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띄웠고, 특히 세안양이 상대팀 포수 강민호에게 먼저 안기는 장면은 관중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성영탁은 트로트 가수 영탁으로 변신해 ‘폼 미쳤다’ 안무를 선보였고, 최지민은 ‘잠만보’ 머리



올스타전에서 승리 감독상을 받은 이범호 감독 / 연합뉴스

피를 착용한 귀여운 패션으로 시선을 끌었다. 김호령도 다크폴 배우 양경원을 패리디한 복장으로 등장해 팬들에게 미소를 안겼다. 경기 종료 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나눔팀을 이끈 이범호 감독이 승리 감독상을 받았고, LG 박동원이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은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대전에서 열렸다. 경기 당일 34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도 약 1만7천여 명의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자라냈다. 여기에 전반기 1위로 돌풍을 일으킨 홈팀 한화와, 올해 개장한 새 구장의 시너지로 현장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다. 이번 올스타전은 통산 24번째 매진 기록이자, 4년 연속 입장권 전량 완판을 달성했다. ‘한여름 밤의 축제’를 마친 KBO리그는 오는 17일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주홍철 기자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8회말 2사 때 1점 홈런을 쳐낸 나눔 김태군이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혁 ‘3관왕’·신정우, 컴파운드 사상 첫 금

광주체고 양궁부가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따내며 광주 양궁의 저력을 과시했다. ‘남자 양궁 차세대 스타’ 박주혁은 3관왕에 올랐다. 박주혁은 지난 12일 전북 임실 오수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리커브 남자고등부 개인전 결승에서 김태현(호원고)을 세트스코어 6-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거리별 경기 50m와 30m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박주혁은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박주혁은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전과 남자고등부 단체전에서는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지현과 출전한 혼성단체전에서는 4강에서 전남(서익언·조한이)에게 1-5, 심유한·전준희·조성철과 팀을 이룬 남자고등부 단체전에서는 4강에서 강원에게 3-5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앞서 여자고등부 50m에서 동메달을 따낸 남지현은 김성령·이윤아·전지현과 팀을 이룬 여자고등부 단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합작했다. 16강에서 전북을 6-2, 8강에서 경기도를 5-4, 4강에서 대구를 5-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전남(김하은·박세민·박효빈·조한이)에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컴파운드에서도 빛나는 금메달 남보가 전해졌다. 지난날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컴파운드 남자고등부 개인전 결승에서 은메달을 수확하며 광주 양궁 컴파

광주체고, 화랑기 시도대항양궁대회 금5, 은2, 동5 ‘빛나는 활약’



지난 12일 임실 오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따내며 광주 양궁을 빛낸 광주체고 선수단이 시상식 후 지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운드 사상 첫 메달을 따낸 신정우는 이번 대회에서는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았다. 32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신정우는 16강에서 김규민(순천고)을 146-141, 8강에서 노형주(충북체고)를 147-143, 4강에서 류희태(팀자인 언트 인천)를 143-142로 꺾고 결승에 올라 전한서(강원체고)를 143-107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신고했다. 신정우는 김예령과 팀을 이룬 혼성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전국체전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박희중 기자



박주혁 신정우

‘장타 여왕’ 방신실, 3타차 역전 우승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제페 ‘시즌 2승’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 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 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타로 우승했다. 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지난 2023년 2승을 올렸다가 지난해에는 무관이었던 방신실은 통산 우승도 4승으로 늘렸다. 우승 상금 1억8천만원을 받은 방신실은 상금 랭킹 3위(6억1천827만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랭킹은 3위가 됐다. 4월 시즌 첫 우승 이후 상금세를 뺐지만, 손목 건초염이 도지면서 두 번이나 경기 도중에 기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방신실은 7일 전 쏠



방신실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KLPGA 제공>

데 오픈 공동 5위로 회복을 알린 데 이어 이번 우승으로 투어 최강자의 면모를 되찾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방신실은 평균 280야드가 넘는 드라이버 샷을 터트리며 장타 여왕의 위력도 회복했다. 김민주는 12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후반 7개 홀에서 3타를 잃는 등 1오버파 73타를 쳐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파리 올림픽 아픔, 더 단단해진 계기”

‘7연승’ 우상혁, 2m34 넘어 올 시즌 세계 공동 1위 기록

우상혁(20·용인시청)은 “내가 조금 느슨해졌다고 생각되면, 바로 파리 올림픽을 떠올린다”고 했다. 이번 여름 유럽 원정길에도 우상혁은 파리 올림픽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로마와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강도 높은 유럽 전지훈련을 하면서 두 개의 다이아몬드리그 우승 메달을 수집한 우상혁은 13일 귀국하며 “훈련 중에 여러 번 파리 올림픽을 떠올렸다”고 털어놨다.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실외 세계선수권 2위(2m35)), 2023년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2m35)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던 우상혁은 파리 올림픽에서는 2m27로 7위에 머물렀다. 귀국 인터뷰에서 우상혁은 “지난해 모나코 대회부터 파리 올림픽까지의 기억이 떠올랐고, 다시 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우상혁은 올해 모나코에서는 2m34의 올해 실외 경기 세계 1위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그는 “파리 올림픽의 아픈 경험이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대를 더 의식했다. 이제는 나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우상혁은 올해 치른 7번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2025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올 시즌 세계 공동 1위 기록인 2m34를 넘어 우승을 차지한 우상혁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실내 시즌 3개 대회(2월9일 체코 실내대회 2m31, 2월19일 슬로바키아 실내대회 2m28, 3월 21일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2m31)에서 정상에 오르더니, 실외 시즌에서도 4개 대회(5월 10일 왓그래비티챌린지 2m29, 5월29일 구미 아시아선수권 2m29, 6월7일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2m32, 7월12일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2m34)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우상혁은 “아웃도어 월드 챔피언(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2028년 LA 올림픽 챔피언 타이틀 획득을 위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절대 1강’ 신진서, 하나은행 슈퍼매치 우승

박정환 꺾고 41번째 타이틀 획득

한국 바둑의 ‘절대 1강’ 신진서 9단이 또 하나의 타이틀을 추가했다. 신진서는 지난 12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바둑 슈퍼매치 결승 3분기 제2국에서 박정환 9단에게 15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종합전적 2-0을 기록한 신진서는 박정환을 따돌리고 슈퍼매치 우승컵을 차지했다. 흑을 잡은 신진서는 초반 포석부터 반상의 주도권을 잡은 뒤 상변 백돌을 공격한 끝에 ‘대마 사냥’에 성공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승리로 신진서는 개인 통산 41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신진서는 랭킹 2위인 박정환과 통산 상대 전



신진서(오른쪽) 9단이 박정환을 9단을 꺾고 하나은행 슈퍼매치에서 우승했다. <한국기원 제공>

적에서 48승 2패로 크게 앞섰다. 14번의 타이틀전 맞대결에서는 10번째 우승을 따냈다. 우승 상금은 7천5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천500만원이다. /연합뉴스